

## 새해에도 교육 지원 지속

##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급

화천지역 인재들을 위한 전폭적인 교육지원이 새해에도 계속된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이사장: 최문순)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2026년 1학기 지역인재 지원 대상자 선별 공고를 발표했다.

학생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가 주민등록 기준 3년 이상 화천지역에 실거주한다면 지원대상이다. 부모 소득이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혜 대학생에게는 국가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 등을 제외한 등록금 실납입액 전액을 지원한다. 대학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미적용된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 평점이 2.5점(4.5점 만점 기준) 이상이면 학자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 100대 대학 재학생들에게는 부모의 소득세 납부 규모에 따라 특별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내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한 거주공간 지원금이 최대 월 60만 원 한도로 전년보다 10% 늘어났다.

세계 100대 대학 입학생과 재학생들에 대한 거주공간 지원금도 신설돼 해당 학생들은 각 학교의 기본형 기숙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은 대학생뿐 아니라,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고교 3학년 학생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재단은 지역 고교 3학년 학생 중 직업위탁 교육생 혹은 기업현장 실습생을 대상으로 매달 50만원 한도에서 거주공간 월세 실비 100%를 지원한다. 1학기 학자 지원금과 거주공간 지원금, 진로 장려금 신청은 내달 12일부터 27일까지, 화천군청 교육복지과, 사내도서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 속초시, 임목폐기물 무상

## 처리로 비용 절감, 지원순환

속초시가 1월 6일(화)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주)천일에너지와 '임목폐기물 재활용 무상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가로수 전정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민간업체에 무상 위탁해 재활용함으로써 처리 예산을 절감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그동안 임목폐기물로 처리되던 폐자원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전환해 활용한다.

수집·가공 과정을 거쳐 목재 칩으로 재자원화해 열병합발전소 연료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이 기존 폐기물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산림 및 도시숲 사업(가로수 전정 등) 설계 시 임목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외할 수 있어 연간 약 7천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임목폐기물 500톤 기준)가 기대된다. 시는 여기에 더해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끝 것으로 전망했다.

## 겨울 축제 안전 점검 총력…화천 산천어 축제장 현장 확인

## 도내 겨울축제장 6개소 대상 겨울 축제 안전 집중점검 실시

김 지사 얼음 안전뿐 아니라 응급구조, 의료대응 태세까지 빈틈없는 준비 당부



은 이제 180만 도시가 되는 것"이라며, "얼음 안전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와 의료대응 태세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3년째 이맘때면 되면 화천군 직원들이 주말과 휴일 없이 두 배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끝까지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도는 겨울철 축제가 주위와 빙판 환경에서 개최되는 특성을 고려해, 시군에서 개최되는 모든 겨울 축제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대책 점검과 유관기관 협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평창 송어축제, 홍천 꽁꽁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를 대상으로 사전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병원성 대장균 등 수인성 감염병 유발 물질은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으며, 하천 수질 또한 생활환경 기준 매우 좋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기자

현장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축제장 내 얼음 두께와 빙질 상태, 수질 검사 결과를 비롯해 현장 운영상황 운영체계와 소방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 등을 차례로 확인했다. 특히 1일 최대 6만 5천 명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대규모 겨울 축제인 만큼, 다중운집에 대비한 치안대책과 안전관리 인력 배치,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 체계 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 지사는 관계자들에게 "작년 축제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하면 화천

## 동해시, 1월 전지훈련 열기로 '활기' 스포츠 도시 위상 강화

고향사랑기부 누적모금 목표 40억 달성·규제혁신 선도·핵심특례 활용



또한 강릉 수영꿈나무 동계 전지훈련이 1월 5일부터 24일까지 망상보양 운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에서 진행되며, 2개 팀 35명이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동해시는 이번 전지훈련 유치로 명품 스포츠도시 이미지 강화와 스포츠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대를 목표로 정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동계 전지훈련 방면이 집중되는 1~2월 체류 인구 증가로 인해 숙박·음식·관광·지역상권 전반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수정 체육과장은 "동해시는 사계절 훈련이 가능한 기후 여건과 우수한 스포츠 인프리를 갖춘 도시로, 전지훈련이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환경과 입지조건을 적극 활용해 체류형 방문객 유치 전략을 지속 강화하고, 사계절 내내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동해시는 다양한 종목의 동계 전지훈련팀이 잇따라 방문하며,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유도동계 합동훈련이 1월 5일부터 10일까지 동해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교통 접근성과 숙박 인프라, 체육시설 등 우수한 환경을 바탕으로 전국 24개 팀, 총 408명이 동해시를 훈련지로 선택했다.

이어 동해체육관에서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동계 합동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며, 16개 팀 268명의 선수단이 동해시를 동계훈련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전국 중학교 동계 스토브리그 축구 대회는 1월 5일부터 27일까지 열리고 있으며, 동해시축구협회 주최·주관으로 전국 24개 팀, 총 570명이 참가해 체류형 스포츠훈련·대회의 지속 운영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 평창군, '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교육

평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고용 문화 정착을 위해 6일 오후 1시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34개 농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인권침해 및 폭력 예방,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 관련 법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한 인력"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인권을 존중하는 고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 제14회 홍천강 꽁꽁축제 1월 9일 개막!

제14회 홍천강 꽁꽁축제가 오는 1월 9일부터 1월 25일까지 17일간 홍천 강변 일원에서 열린다.

얼음 낚시터는 총 3개 구역으로 운영되며, 이상기온에 대비한 부교 낚시터는 700공 규모로 운영된다.

축제 프로그램은 △낚시 체험(얼음 낚시터, 부교 낚시터, 인삼 송어 맨손 잡기, 가족 실내낚시터) △놀이, 체험(꽁꽁 얼음 썰매장, 눈썰매장, 체험 부스)△스며거리(회센터, 향토음식점, 실외 음식점, 푸드트럭)△이벤트(행운권 추첨, 꽁꽁 디제이(DJ) 라디오, 꽁 조사 이벤트, 대형 인삼 송어를 잡아라!), 사진 공모전,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부대행사(무대 공연, 노래자랑 대회)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입장권 구매 시 제공되는 행운권 추첨에서는 1등 경품으로 (주)소노인터넷(주)가 지원하는 행운권 1대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송어를 잡지 못한 방문객을 위한 '꽁 조사 이벤트'와 1kg 이상 대형 인삼 송어를 잡는 '대형 인삼 송어를 잡아라!' 이벤트도 진행된다. 대형 인삼 송어에는 축제장 내 관광안내소에서 무게 측정 후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

김민석 기자

## 원주시, 혁신도시 맞춤형 축제·행사 지속 추진

원주시는 혁신도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축제 추진 예산 1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2026년에도 상반기는 '혁신도시 상생마켓'을, 하반기는 '혁신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2025년 첫선을 보인 '혁신도시 미리내아행' 또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확대 운영에 나선다.

이들 축제는 이전 공공기관이 밀집한 혁신도시의 특성을 살린 공공기관 홍보 부스, 동아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예술 공연, 먹거리·판매 부스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장일현 지역개발과장은 "2026년에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더욱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혁신도시가 머무르고 찾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열린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

## 열린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

이언식 의원

고양천 의원

김용술 의원

도봉우 의원

장순기 의원

장규권 의원

정재동 의원

임샛별 의원

윤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

2025년 한해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금천구의회가 되겠습니다.  
-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 -

